

광주 505보안부대 원형 복원 '첫발' 뒀다

5·18 진압 실질적 지휘본부 고문 모습 밀랍형태 제작 등 전시공간 만들어 역사 체험 광주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3년 공사 후 2024년 공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반란군'의 실질적인 광주 진압 지휘소였던 광주 505보안부대의 원형을 복원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첫 발을 뒀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6호로 지정된 505보안부대 옛 건물은 지난 2005년 보안부대가 31사단으로 옮겨간 이후 줄곧 방치돼 왔다.

광주시는 최근 505보안부대 원형복원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 505보안부대 원형복원 및 전시공간 구성 등 기본 활용 방안이 수립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밀그립 그리기에 나선 것이다.

서구 삼촌동에 자리 잡은 옛 505보안부대는 3만8459㎡ 부지에 본관, 식당·이발소, 면회실, 위병소, 내무반, 연립관사 등 6개 건물로 이뤄졌다. 총 건물 면적은 2293㎡다.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식당·이발소는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D등급, 나머지는 C등급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내무반과 연립관사는 리모델링하고, 본관 등 나머지 건물 4곳은 1980년 5월 당시 옛모습을 최대한 살려 복원하기로 했다.

용역업체 설계 단계에서 고층 자료를 수집하고 5·18단체, 복원 관련 전문가가 조

언을 받아 설계도면을 작성기로 했다.

복원 과정에서 건물의 배치와 양식을 바꾸지 않고, 과거에 사용된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해 복원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오래 방치돼 파손된 창문과 뒤틀리고 부서진 문, 낡은 천장 등도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린다.

건물 외형뿐 아니라 복원된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설계 용역 단계에서 이뤄진다.

505보안부대는 당시 잔혹했던 5·18 진압 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고, 주요 인사들을 끌고 와 고문을 자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단체는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고, 시민을 취조하고 고문하는 당시 모습을 밀랍형태로 만들어 전시하는 방안 등을 광주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5월 단체 제안을 받아들여 최

대한 현실감 있게 공간을 복원한 후, 시민들의 역사체험 및 배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

5·18 이후에 지어진 내무반과 연립관사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시·사무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숙박 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5월 단체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설계 과정에서 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05보안부대 6개 건물에 대한 복원 사업은 향후 10개월간 설계 용역을 거친 뒤, 3년여간 공사를 거쳐 2024년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설계비를 포함해 모두 3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암초 걸려 낚시배 좌초

여수 금오도서 1명 부상

지난 8일 오후 3시에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안에서 여수선적 9.77t급 낚시배 A호가 좌초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승객 14명을 태우고 출항한 A호는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월포마을 앞 해상으로 이동하던 중 암초에 걸렸다.

다행히 발등에 타박상을 입은 승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의 부상은 없었으며, 승객들 '갈치' 낚시를 위해 A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좋은 운항 중 선장 B(61)씨가 해상에서 설치된 어장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승객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



패션의 거리서 행복 걷기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서 '제2회 패션의거리 행복나눔가족 걷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패션의 거리 상인회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 용봉마을공동체가 개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특별수사단 오늘 공식출범... '헬기 이송·CCTV 의혹' 중점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수사팀 8명으로 구성을 모두 마쳤다.

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

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 안팎의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 CCTV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조위 2기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도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밖에 특조위 2기에서 제기한 사고 직후 세월호 내 CCTV 영상 자료 조작 의혹, 진상 조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철원서 생포한 멧돼지, 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됐는데...

광양서 사살한 멧돼지 시료 채취조차 안해

전남도가 생포·사살한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 감염 여부조사 확인하지 않고 매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포획된 생포한 야생멧돼지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 철원에서 포획된 생포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포획 후 잡힌 멧돼지 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지만, 전남도는 포획·사살한 멧돼지에 대해서는 시료채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광양시 도이동 한 부두에서 야생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해 염사가 쏜 총에 사살됐지만, 광양시는 사살된 멧돼지에 대해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매몰처리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포획·사살한 모든 야생멧돼지를 시료채취를 해야 한다는 지침

은 없다"며 "육안으로 감염 징후가 보이지 않아 시료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도는 죽어 있는 멧돼지 폐사체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살아 있는 멧돼지를 포획·사살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도 시료채취 대상으로 폐사체만 명시돼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살아 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만큼, 시료채취 없이 잠복기간(6-14일)을 고려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에선 하루 평균 35마리의 멧돼지가 포획·사살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포획된 야생멧돼지 중 5%에 대해선 시료채취를 당부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사 진료 안 거친 내시경 검사... 법원 '비급여 대상'

의사의 진료나 권유 없이 환자의 요청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던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해도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모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11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60명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

진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과거 응급진료를 받은 적 있는지, 복통·설사·변비 등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검사를 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병원이 주장한 과거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이유만으로 이들이 받은 검사가 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요청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 결과를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남뉴스

"BTS 공연티켓 대신 사줄게" 5억원 '떡튀' 20대 실형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300여명으로부터 5억여 원 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서정희)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콘서트와 팬 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

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2명에게서 5억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의 징벌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에 의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